

1/19(화) 사사기 묵상 41

사사기 14: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여호와와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했던 놀라운 말씀이 끝나자마자 14장은 성장한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과연 삼손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 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 13장 마지막 구절은 그에 대한 기대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 13: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삼손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등장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본래 1절에 등장하는 딘나 지역도 이스라엘 단 지파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볼 때 훗날 블레셋에 의해 복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는 혼인 문제로 부모에게 상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혼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상의하는 것은 겉보기에 매우 올바른 처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게 됩니다(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지한 조항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로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볼 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에게는 더욱이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혼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문의 내용을 번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즐거우므로;’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하므로’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기준이 오직 자신의 눈과 감각에 있다는 것은 삼손이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일로 인해 함께 딘나에 내려가지만 더이상 삼손을 신앙적으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여인을 삼손의 며느리로 받으려고 했다면 최소한 혼인 전에 그녀가 믿던 이방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쉽게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8-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본래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지만 삼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고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 이처럼 삼손은 상습적으로 부모를 속이고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삼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도 성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4절,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기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다말 여인의 혼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다말 여인이 혼인하게 인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인 다말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삼손은 다말 여인과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평안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딘나 여인을 선택한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결국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도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 교회를 위한 기도: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 CM, Youth, 청년부에 속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원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